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 지상중계

# “기초과학-응용기술-산업화 실현 최적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주최한 '과학벨트 호남 유치를 위한 포럼'에서는 ▲우수한 인프라 ▲국가균형발전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이유로 호남권 유치를 적절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포럼의 발제 내용과 패널들의 토론을 요약 정리했다.

◇김진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첨단과학산업단지·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인프라·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기관 집적화, R&D특구 지정, 광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모델을 창출한 경험 덕분에 호남권은 과학벨트의 목표인 '기초과학-응용기술-산업화' 실현의 최적지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와 경부 축 중심의 개발,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불균형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행복도시·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대규모 과학사업의 충청·영남권 집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부 연구가 그동안 서울에서 대덕까지 확산했다면 이제는 호남과 영남까지 전 국토로 퍼져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호남은 청정환경과 최선의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반이 견고하여 안정적으로 가속기를 보유할 수 있다. 또 국가과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과학인류 창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유치 제언의 핵심은 광주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치, 목포·순천·전북 정읍 등에 기초과학연구원 부속 연구소(Site-Lab) 설치, 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제2캠퍼스, 대전에 기초과학연구원 제3캠퍼스 설치 등을 통해 내륙 3각 벨트 개념으로 과학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호남의 우수한 유치 여건으로는 ▲연구기관 집적 정도 우수 ▲녹지비율 40% 등 쾌적한 생활환경, 6대 광역시 중 가장 저렴한 주거비,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 우수한 교육 여건 등 최고의 정주환경 ▲연구·정주·생산환경 조성에 필요한 50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영남권과 충청권과 달리 호남권은 1978년 이후 리히터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등 지반의 안정성과 재난 안전성 측면에서 중이온가속기 설치에 최적지다.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광주과학기술원이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낸 가장 큰 이유는 연구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었다. 역시 과학벨트도 다른 지역에 가면 주거환경이 광주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과학벨트 호남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허민 전남대 자연과학대학장, 정진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김진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이인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장, 전영복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 왼쪽부터)이 토론자로 참석해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국책사업 호남까지 확산 국토균형발전 이뤄야 광주·전남 연구소·인력 등 과학 인프라 풍부 부지 확보 용이...지반 안정성 측면서도 우위

나빠서 광주와 같은 효과를 못 낼 것이다.

◇허민 전남대 자연과학대학장=기초과학연구원은 순수기초과학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연구원으로는 3000명의 박사과 이를 보조하는 지역 인력이 필요한데 광주·전남에는 풍부하다. 기초과학 인프라 측면에서도 비교적 우위에 있다. 정부 출연 연구소가 많은 곳이 적합하다는 주장은 출연연구소 기능이 순수기초과학 중심의 기초과학연구원의 기능과는 약간 다르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지반의 안정성 측면에서 경부·포항은 신생대 지층으로 연약하며 이러한 지질학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호남은 세계적인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자연한

경이 있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원장=과학벨트가 지향하는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학(Science to Business)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 응용연구에서 개발연구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와 확산이 중요하며 이 관점에서 과학벨트와 R&D특구 연계 육성이 중요하다. 대덕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이 될 경우 타지역의 과학 기술·인력·자본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상호 호혜관계를 형성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기초과학역량이 충분한 광주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대덕과 대구에 본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 모델이다.

◇이인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장=고등광기술연구소에는 자체 개발한

대형 연구시설 초강력 펄드레이저가 있어 기초과학 연구 및 응용기술 연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시설은 과학벨트 유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영복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지반 안정성 외에 호남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대기오염도가 낮을 뿐 아니라 좋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어 중이온가속기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소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선순위 협약 체결 ▲시·도민 100만 서명운동 전개 ▲세부 시행계획 조속 수립 ▲영어 공용화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 도시 환경 조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정진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대학의 연구소는 후세대 교육자를 양성하는 측면이 강조되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연구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어 설립이 절실하다. 문제는 서울과 대덕은 연구소 등이 이미 포화 상태에서 연구원들이 떠나야 할 정도며 따라서 호남 등 새로운 지역에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만을 위한 과학벨트인가”

박지원 “충청권 원칙” 김성곤 “당론 따르겠다”

전남 국회의원들 유치 소극적...광주와 대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광주·전남지역 유치를 놓고 광주 국회 의원들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광주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이재오 특임장관 및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남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 유치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부상한 이후에야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과학벨트 유치에 적극적인 나서기보다 지역 현안임을 의식해 얼굴이나 비추는 '병풍'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광주는 하나의 지역적 단위로 묶이는 반면 전남은 권역이 넓어 동부, 서부, 중부 등으로 나뉘면서 특정 현안에 대해 일체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과학벨트

의 충청권 유치를 결정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벨트 유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유치된다고 해도 자신의 지역구에 별다른 영향도 없는데 괜히 나서서 지도부의 눈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전남 국회의원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과학벨트의 광주·전남지역 유치를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오리현 박지원 원내대표는 과학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 '충청권 유치'의 당론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김성곤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당론'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학벨트가 광주만의 일도 아니며 전남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무관심이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주장

### 당 대표 입장 이해해 달라”

손학규 대표, 광주 국회의원 회동서 요청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광주 국회의원들이 7일 밤 막걸리를 기울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고민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8일 조영택 의원(서갑)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밤 광주 국회의원들과 만나 “내가 대표가 된 것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지지한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내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운한 점도 있었지만 당 대표로서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이어 “내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라며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유치하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민주당도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광주 국회의원들은 “손 대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된 광주·전남의 현실을 감안하면 과학벨트 유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손 대표에 이해를 구했다.

또한, 광주 국회의원들은 “일각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을 뒤집으려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입장은 있었지만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만 너무 세계 주장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양측이 과학벨트 입지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분위기는 좋았다”며 “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앞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겠지만 광주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지역 유치를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MBC 문화탐방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MBC 문화탐방" 을 치십시오.

# 방콕·앙코르왓

## 무안 ↔ 방콕 직항 전세기

2011. 2. 17 ~ 3. 31 (총 12회)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건) © 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71-31

목요일 (3박 4일) 출발  
2월 17, 24일 / 3월 3, 10, 17, 24일

일요일 (3박 5일) 출발  
2월 20, 27일 / 3월 6, 13, 20, 27일

관광 799,000 부터~

캠보디아 육로 899,000 부터~

골프 1,049,000 부터~

허니문 5일 초특급호텔·럭셔리호텔 1,349,000원

포함사항:
 

- 일정에 따른 현지 호텔비(2인1실), 식사비, 입장료, 현지관광사
- 국제선항공료, 무안 출/공역세, 전정보행료, 1인당 여행자보험
- 알카자소 및 전정만마 2시간 1회 포함
- 특식 (태국식-사트사브, 수끼, 호텔내부드, 한식-삼겹살)
-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팀 전 일정 US\$30~40/인 별도
  - 유류할증료 68,000원 (성인/아동 동일)
  - 캠보디아 육로 비자 비용 별도 \$53/인 - 사전에 지정요
  - 골프장부대경비 - 골프장에 따라 커피티, 전동카트, 캐디

크리스탈타이항공 · 광주 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